

한국판 애도 관련 회피 척도(K-GRAQ)의 타당화[†]

차 성 이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현 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별 경험 이후 죽음과 상실을 상기시키는 자극에 대한 회피를 측정하는 애도 관련 회피 척도(GRAQ)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원 저자의 동의와 검토를 거쳐 한국판 애도 관련 회피 척도(K-GRAQ)의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친밀한 대상과의 사별을 경험하고 6개월 이상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483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문항 총점 상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K-GRAQ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GRAQ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n=241$)과 확인적 요인분석($n=242$)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2요인 모형의 적합도보다 원저자가 제안한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GRAQ와 복합 비애 증상과 우울, 불안 증상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애도 회피, 복합 비애, 척도 타당화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현명호,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복합 비애는 사별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애도 반응을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애도 반응을 벗어난 심리적 및 신체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된다(장현아, 2009; Prigerson et al., 1995). 최근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과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개정판(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에 지속 비애 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가 정식 포함되면서 사별 이후에 경험하는 지속적인 고통감과 기능 손상에 대한 임상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 국가 재난 사건과 맞물려 복합 비애 및 지속 비애에 관한 연구가 2010년도 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차성이, 박신영, 현명호, 2022).

애도 과정은 친밀한 대상의 죽음 및 상실에 대한 정서적 고통과 침습적인 심상 및 사고, 고인의 부재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는 과정이며 심리적 어려움과 적응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이에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사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회피하려고 한다(Shear et al., 2007; Shear, 2010).

사별을 상기시키는 자극에 대한 회피적 대처는 상실 이후의 고통감을 조절하려는 자연스러운 대처 전략으로, 즉각적으로는 사별에 따른 고통감을 줄여줄 수 있다(Bonanno, Papa, Lalande, Zhang, & Noll, 2005). 하지만, 사별을 상기시키는 자극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면 애도 작업(grief work)을 방해하여 복합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Kersting, Brähler,

Glaesmer, & Wagner, 2011). 뿐만 아니라 애도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는 궁극적으로 사별 경험을 정서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자서전적 삶의 서사(narrative)에 통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복합 비애 증상을 지속시키고 사별 경험 이후의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oelen, van den Hout, & van den Bout, 2006; Neimeyer, Burke, Mackay, & van Dyke Stringer, 2010).

이에 다수의 선행 연구는 애도에 대한 회피적 대처 전략이 복합 비애의 발달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애도 회피는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상실 사건을 떠올리는 장소나 상황, 대상을 피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한다(Bonanno et al., 2005; Hogan & Schmidt, 2002). 또한 사별 이후의 부적응적인 회피를 불안 회피와 우울 회피로 구분한 연구도 있었다(Boelen, van den Bout, & van den Hout, 2006). 즉, 우울 회피는 사별자가 사별 이후 회복과 적응을 촉진하는 행동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불안 회피는 상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상실과 관련한 상황과 사람, 활동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연구에서는 애도 회피가 사별 경험을 인지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별 이후 복합 비애 증상의 발생과 유지,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꾸준히 지지하였다(Boelen, Stroebe, Schut, & Zijerveld, 2006; Boelen, van den Bout et al., 2006; Bonanno, Keltner, Holen & Horowitz, 1995). 다만, 애도 회피가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Bonanno 등(2005)은 애도 회피를 애도 작업과 구분되는 과정으로, 복합 비애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대처 전략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사별과 상실에 대한 감정과 생각 등을 처리하고 직면하는 애도 처리 과정(grief processing)과 애도 회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도 처리 수준이 감소하였지만 애도 회피 수준은 유지되었고, 사별 직후의 애도 회피 수준은 1년 반 이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Shear 등(2007)은 기존의 생물행동적 애착 기반 모델(Biobehavioral attachment based model of prolonged grief; Shear & Shair, 2005)에 애도 회피 과정을 포함하여, 회피가 사별 이후 기준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애착 모델의 수정과 통합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애도 회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도 회피가 복합 비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애도 회피가 현재의 복합 비애 수준은 예측하나 기저선을 통제하였을 때 미래의 복합 비애 증상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Boelen, van den Bout et al., 2006). 실험을 통해 암묵적인 애도 회피를 살펴본 연구(Maccallum, Sawday, Rinck, & Bryant, 2015)에서는 복합 비애 증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실 관련 이미지를 더 느리게 밀어냈고, 비애 관련 자극을 밀어내는 속도보다 당기는 속도가 유의하게 빨랐다. 즉, 복합 비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상실 관련 이미지에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도 회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과 애도 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섬세하고 타당화된 도구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사별 경험에 대한 회피적 대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회피는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평정자의 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섬세함이 요구된다(Baker et al., 2016). 이에 애도 회피를 자기보고식 질문을 통해 측정할 때 사별자가 상실 이후 피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의 뉘앙스와 방식에 따라 회피 정도를 과소 보고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애도 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는 의도적 애도 회피 척도(Deliberated grief scale; Bonanno et al., 2005)와 사별 이후의 회피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Boelen, van den Bout 등(2006)이 구성한 질문지가 있다. ‘의도적 애도 회피 척도’는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애도 작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의도적인 애도 회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국내에서 번안하는 과정에서 원저자의 제안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를 측정하는 3개 문항을 추가한 총 10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조선희, 강영신, 2015). 문항은 ‘지난 1개월 동안 (가까운 가족, 친구, 혼자 있을 때) 상실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피했습니까’, ‘상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피했습니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애도 회피에 대한 측정 도구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번안된 척도이나 타당화는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Boelen, van den Bout 등(2006)이 사별 이후의 부정적 인지와 회피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10개 문항의 질문지가 있다. 이 척도

는 행동적 회피 전략과 인지적 회피 전략, 상실과 관련한 반추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0(전혀)'부터 '100(항상)' 사이에 평정한다. 이 척도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나 타당화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지적 회피 전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애도 회피 측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Shear 등(2007)은 애도 관련 회피 척도(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GRAQ)를 개발하였다. GRAQ는 사별 후 죽음과 상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장소, 자극에 대한 회피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Shear 등(2007)은 복합 비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18세 이상 성인 128명을 대상으로 GRA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복합 비애 증상과 우울, 기능 손상과의 상관이 유의하여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GRAQ를 3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하고 죽음을 상기시키는 장소와 물건에 대한 회피, 상실을 상기시키는 활동에 대한 회피, 질병 및 죽음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회피로 명명하였다.

Baker 등(2016)은 사별을 경험한 3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GRAQ를 타당화했다. 연구 결과, 내적 일치도는 .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나 Shear 등(2007)의 연구와 척도의 하위 문항을 기준으로 3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GRAQ는 불안과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복합 비애 증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나 애도 관련 회피 척도의 심리 측정적 타당성을 지지했다.

애도 회피는 복합 비애의 증상 발달과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이에 애도 회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도 회피 양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화가 요구된다. GRAQ는 애도 관련 회피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복합 비애 증상을 보이는 집단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는 점, 죽음과 상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회피의 3가지 하위 문항으로 애도 회피를 세분화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별 이후의 회피적 대처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강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판 애도 관련 회피 척도를 타당화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RAQ를 번안하고 저자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판 애도 관련 회피 척도(K-GRAQ)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K-GRAQ의 내적 신뢰도와 문항 총점 상관(Item Total score Correlation: ITC)을 확인하고, 설문 2주 후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K-GRAQ의 요인 구조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사별 이후 심리적 적용 과정과 복합 비애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도 회피의 측정 도구를 국내에 소개하여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서적 친밀감 정도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본 연구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만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약 1주일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전문조사업체에 등록하고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로, 연구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설문을 진행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패널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5~10배수의 표본 수가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Comrey & Lee, 2013). 연구에 참여한 500명 중 연령 기준이 맞지 않거나 '친밀한 대상'과의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총 483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무작위 추출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241명, 확인적 요인분석에 242명이 배정되었다.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1041078-20231115-HR-312).

측정도구

사별 관련 질문지. 사별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얻고 사별 이후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별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별 관련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에는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사망 원인, 사망 시점 고인의 나이, 사별 후 경과한 시간, 죽음을 예상한 정도, 고인과의 정

한국판 애도 회피 척도(Korean version of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K-GRAQ). 사별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애도 관련 회피 척도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GRAQ; Shear et al., 2007)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GRAQ는 사별 이후 죽음과 상실 등을 연상시키는 상황에 대한 행동적 회피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hear 등 (2007)과 Baker 등(2016)의 연구에서 GRAQ는 상실, 죽음, 연민을 상기시키는 것에 대한 회피의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87에서 .89 정도였는데(Baker et al., 2016; Shea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한국어판 복합 비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K-ICG). 복합 비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Prigerson 등(1995)이 개발하고 김혜진과 송인한(2020)이 타당화한 K-IC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상에 평정하는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복합 비애를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K-ICG는 국내의 복합 비애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다(차성 이 외, 2022). 이전 연구(김혜진, 송인한, 2020)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 정도는 Spitzer, Kroenke와 Williams(1999)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안제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2013)이 표준화한 PHQ-9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 2주간 경험한 우울 증상을 4점 리커트 척도상에 표시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하다고 해석한다. 안제용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 18: BSI-18). SCL-90-R의 단축형으로 Derogatis(2001)가 개발하고 박기쁨, 우상우, 장문선(2012)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신체화, 우울, 불안 3요인의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화는 심장혈관, 위장 장애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역기능적인 증상을 묻고, 우울은 자살 사고, 절망감, 무쾌감증 등의 불쾌한 기분과 관련한 증상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은 안절부절못함, 긴장감, 공황 상태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기쁨 등(2012)은 BSI-18의 문항이 우울, 불안, 신체화, 공황의 4요인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기쁨 등(2012)이 불안과 공황으로 요인분석한 7개 문항을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7개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의도적 애도 회피 척도(Deliberate Grief Avoidance Scale: DGAS). K-GRAQ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 고인에 대해 말하는 것, 고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등 애도 작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회피하는 정도를 의도적 애도 회피 척도(Bonnano et al., 200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경우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국내에서 조선화와 강영신(2015)이 ‘애도 회피 척도’의 이름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원저자의 제안으로 척도 개발 당시의 3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조선화, 강영신(2015)의 연구에서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절차 및 자료 분석

먼저 GRAQ의 번안 작업을 위해 원저자에게 번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후 임상심리 전공 박사과정 1인이 원척도를 번역하고 임상심리 전공 박사과정 1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영어권 국가에서 9년 이상 거주 및 수학하고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가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역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역 번역한 척도는 원저자 및 연구진과의 논의를 통해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이메일을 통해 수정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추가 설명과 특정 단어가 사용된 맥락과 목적에 대한 상호 이해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골함(urn)’을 ‘납골당(charnel house)’으로 변경하는 등 한국 문화권의 추모 방식을 고려하여 표현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판 애도 관련 회피 척도(K-GRAQ)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살펴보았고 문항 총점 간 상관

(ITC)을 통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발하여 설문 작성한 2주 후에 K-GRAQ를 재설시하여 급내 상관분석(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진행하였다. 또한, K-GRAQ의 요인 구조와 요인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무작위로 이분하여 2개의 표본으로 나누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GRAQ의 공인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ICG, PHQ-9, DGAS, BSI-18의 불안·공황 하위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대상자의 일반 특성 및 사별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과 사별 관련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52세($SD=11.48$, 20대=7%, 30대=15.3%, 40대=26.1%, 50대=33.3%, 60대=18.2%)였고, 남성이 174명, 여성이 309명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가 72명(14.9%), 전문대 재학 및 졸업 96명(19.9%),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263명(54.5%), 대학원 재학 및 졸업 52명(10.8%)이었으며, 혼인 여부는 미혼이 140명(29%), 기혼이 313명(64.8%), 이혼 및 사별이 30명(6.2%)이었다. 종교의 경우, 무교가 247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101명, 20.9%), 불교(75명, 15.5%), 천주교(60명, 12.4%) 순이었다.

사별 대상으로는 부모가 56.3%(272명)로 가장

많았고, 친구 및 동료(14.9%), 조부모(13.9%), 친척(7%), 형제 및 자매(6.2%), 연인(1%), 배우자(0.4%), 자녀(0.2%)순이었다.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만성질환 및 암이 39.3%(190명)로 가장 많았고, 급성질환 101명, 자살 92명, 사고사가 59명, 자살이 32명, 타살이 4명, 기타(질환 불명, 코로나 19 등)가 5명이었다. 사별 대상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는 280명으로 58%였으며, 보통은 12.4%(60명), 예상한 경우가 29.6%(143명)였다.

사별 후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10~20년 미만'이 32.7%(15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5년'이 129명으로 26.7%, '6~10년 미만'이 118명으로 24.4%, '1~2년 미만'이 61명으로 12.6%, '6개월~1년 미만'이 17명으로 3.5%로 가장 적었다. 이에 사별 후 경과 기간이 '6개월~5년 이하'인 경우와 '6~20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애도 회피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했으며($t=2.34$, $df=481$, $p=.021$), 사별 이후 경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가 그 이상인 경우보다 애도 회피가 높았다.

신뢰도 분석

K-GRAQ 문항의 기술 통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0.24~1.51 범위였으며 첨도는 0.19~2.10 범위로, 왜도 2 미만, 첨도 7 미만으로 나타나 문항의 정규성을 만족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문항 총점 상관(ITC)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40 이상으로 유의했으며 최소 .662에서 최고 .826으로 나타났다($p<.001$).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 특성 및 사별 특성(N=483)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4	36.0
	여성	309	64.0
연령	20대	34	7.0
	30대	74	15.3
	40대	126	26.1
	50대	161	33.3
	60대 이상	88	18.2
학력	고졸 이하	72	14.9
	전문대졸	96	19.9
	4년제 대졸	263	54.5
	대학원졸	52	10.8
혼인 상태	미혼	140	29.0
	기혼	313	64.8
	기타(이혼, 사별 등)	30	6.2
종교	기독교	101	20.9
	불교	75	15.5
	천주교	60	12.4
	무교	247	51.1
사별 대상	배우자	2	0.4
	자녀	1	0.2
	부모	272	56.3
	형제 및 자매	30	6.2
	조부모	67	13.9
	친척	34	7.0
	연인	5	1.0
	친구 및 동료	72	14.9
	만성질환 및 암	190	39.3
	급성질환(심장마비 등)	101	20.9
사망 원인	사고	59	12.2
	자살	32	6.6
	타살	4	0.8
	자연사	92	19.0
	기타	5	1.0
	10대 미만	1	2.0
사망 시점 고인의 나이	10대	18	0.7
	20대	46	9.5
	30대	33	6.8
	40대	45	9.3
	50대	51	10.6
	60대	289	59.8
	6개월~1년 미만	17	3.5
	1~2년	61	12.6
사별 후 경과 시간	3~5년	129	26.7
	6~10년 미만	118	24.4
	10년~20년 미만	158	32.7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연구 대상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진행 2주 후 GRAQ를 재설시하여 구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금내 상관 계수(ICC)가 .942($p<.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K-GRAQ의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표 2. K-GRAQ 척도의 요인 구조와 문항-총점 상관

문항	내용	요인		ITC
		1	2	
7	당신은 고인과 연관되는 집안의 공간과 장소를 피합니까?	0.890	0.690	.759**
	당신은 고인과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과의 사회 활동을 피하십니까?			
11	(예: 식사 초대에 응하기, 영화 관람 및 운동 경기와 같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등)	0.874	0.586	.826**
	당신은 집 안에서 고인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합니까?			
8	(예: 식탁에서 식사하기, 고인이 계획했거나 기뻐했을 집안 수리하기, 고인이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 보기 등)	0.831	0.661	.826**
	당신은 집 밖에서 고인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합니까? (예: 고인과 자주 하던 산책하기, 고인과 자주 방문하던 식당에 가기, 고인이 자주 다니던 교회나 성당 혹은 절에서 종교 활동 참석하기 등)			
9		0.815	0.625	.815**
12	당신은 스스로 어울리지 못하고 결론다는 느낌이 들거나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모임이나 집단과의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피합니까?	0.804	0.541	.782**
3	당신은 고인의 사진을 보는 것을 피합니까?	0.799	0.592	.781**
4	당신은 고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씁니까?	0.797	0.560	.759**
6	당신은 고인의 개인 소지품이나 유품을 접촉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0.781	0.598	.775**
10	당신은 고인과 관련된 가족 행사를 피합니까? (예: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등)	0.746	0.537	.757**
5	당신은 가족 혹은 친구들과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까?	0.733	0.425	.733**
1	당신은 고인을 모신 장소(묘지, 납골당 등)나 추모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피합니까?	0.639	0.431	.662**
14	당신은 병들고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합니까?	0.591	0.911	.718**
15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까?	0.627	0.874	.750**
13	당신은 장례식에 가는 것을 피합니까?	0.668	0.870	.765**
2	당신은 죽음과 관련된 장소를 피합니까? (예: 병원, 장례식장 혹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다른 장소들)	0.681	0.749	.761**
	고유값(Eigen value)	8.969	1.004	
	설명분산(Explained variance, %)	59.792	6.690	
	누적분산(Total explained variance, %)	59.792	66.482	

주. ITC(Item Total score Correlation).

** $p<.01$.

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KMO 값은 .934였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은 2873.780($df=105$), $p<.001$ 이어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 추출 방법과 요인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은 고유값(eigenvalue) 1.0 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개 요인이 적절하였고, 누적 분산은 66.482 이었다. 모든 요인의 추출값은 0.4 이상으로 적절하였다. 각 요인 별로 첫 번째 요인은 11개 문항(1, 3~12), 두 번째 요인은 4개 문항(2, 13~15)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사별과 상실을 상기시키는 장소와 물건, 활동에 대한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요인은 죽음

에 대한 연민을 일으키는 장소와 활동에 대한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개발 당시 K-GRAQ는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고(Shear et al., 2007), Baker 등(2016)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즉, 이들 연구에서 K-GRAQ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장소와 물건에 대한 회피, 상실을 상기시키는 활동에 대한 회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질병, 죽음 관련)에 대한 회피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Baker 등(2016)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1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K-GRAQ 하위 척도를 참고하여 3개 요인을 고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고 3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요인 1에는 2, 7~12의 7개 문항, 요인 2에는 1, 3~6의 5개 문항, 요인 3에는 13~15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한 2개 요인 구조 모형과 선형 연구(Shear et al., 2007; Baker

표 3. K-GRAQ와 타 변인 간 상관관계

	DGAS	K-ICG	PHQ-9	BSI-18 (불안·공황)
K-GRAQ	.694**	.522**	.375**	.408**
상실 관련 회피	.646**	.542**	.332**	.371**
K-GRAQ	.632**	.456**	.324**	.370**
연민 관련 회피	.631**	.396**	.404**	.390**

주. K-GRAQ(Korean version of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DGAS(Deliberate Grief Avoidance Scale), K-ICG(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BSI-18(Brief Symptom Inventory - 18).

** $p<.01$.

표 4.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모형 1(2 요인)	283.69	84	.90	.91	.93	.10
모형 2(3 요인)	260.99	83	.91	.92	.94	.09

et al., 2016)의 3개 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음, .08 이하이면 적절함, .10 이상은 나쁜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1차 분석 결과, 두 모델 모두 CFI와 TLI, RMSEA의 값이 적합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모델에 포함된 잠재 변수의 인과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모형 적합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측정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김대업, 2008). 확인적 요인분석을 할 때 문항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각 문항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허용할 수 있다(김소희, 2019; 조용래, 2011; Brown, 2003). K-GRAQ도 구체적인 예시 상황을 들어 애도 회피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항의 내용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총점 간 상관이 높은 점도 이를 지지한다. 따라서 모형의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여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모형 1(2요인)의 경우 8번과 9번, 11번과 12번, 1번과 2번, 10번과 11번, 5번과 6번의 문항의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CFI가 .93, TLI가 .91으로 적합하였으나 RMSEA가 .10으로 나타났다. 모형 2(3요인)는 8번과 9번, 11번과 12번, 10번과 11번, 1번과 2번 문항의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을 때, CFI가 .94, TLI가 .92, RMSEA가 .09로 나타났다. 이에 2요인 구조의 모

델보다 3요인 구조의 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표 4).

K-GRAQ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별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으로서 복합 비애 증상(K-ICG)과 우울 증상(PHQ-9), 불안 증상(BSI-18: 불안·공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K-GRAQ는 DGAS와 .694($p<.01$), K-ICG와 .522($p<.01$), PHQ-9와 .375($p<.01$), BSI-18의 불안·공황 하위 문항과 .408($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K-GRAQ의 수렴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애도 관련 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Shear 등(2007)이 개발한 GRAQ를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친밀한 대상과의 사별을 경험하고 6개월 이상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K-GRAQ의 내적 일치도는 .95였으며 급내 상관 계수로 확인한 재검사 신뢰도는 .942로 양호하였다. 문항 총점 상관(ITC)도 모두 .60 이상이어서 K-GRAQ는 신뢰로운 척도로 나타났다.

척도의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2개 요인 모형과 원저자 (Shear et al., 2007)와 선행 연구(Baker et al., 2016)의 요인 구조를 참고한 3개 요인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3개 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명은 선행 연구와 문항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하였다. 요인 1은 7개 문항(2, 7~1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 활동이나 사회 활동 등 고인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장소와 활동에 대한 회피를 묻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상실 관련 회피'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5개 문항(1, 3~6)으로 고인의 사진, 유품, 방, 고인에 대해 말하기 등 고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장소나 물건, 활동에 대한 회피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죽음 관련 회피'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3개 문항(13~15)으로, 타인의 죽음에 대해 연민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관한 회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민 관련 회피'라고 명명하였다. K-GRAQ는 복합 비애와 상관이 높고 우울 및 불안 증상과도 상관이 유의하여 수렴 타당도도 양호하였다.

본 연구는 애도 관련 회피를 측정하는 척도를 국내에 번안하고 타당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사별 이후 회복 과정에서 상실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정서 및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Shepherd, 2003)은 꾸준히 강조되었다. 최근 애도 회피의 감소가 복합 비애의 회복 과정을 매개하고(Lechner-Meichsner, Mauro, Skritskaya, & Shear, 2022), 경험적 회피가 외상 후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Kashdan & Kane, 2011)는 사별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애도 회피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별 이후 심리적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도 회피가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화와 강영신(2015)은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사별 이후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애도 회피의 역할을 탐색

한 바 있다. 또한, 김라영과 장진이(2020)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 중 하나로 애도 회피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사별 이후의 심리적 적응과 회복 과정에서 애도 회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애도 관련 회피 척도를 타당화함으로써 지속 비애와 애도 회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 K-GRAQ는 친밀한 대상과의 사별을 경험한 이후의 정서적 어려움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K-GRAQ를 통해 측정한 애도 회피는 복합 비애, 우울, 불안 증상과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애도 회피가 복합 비애 증상과 사별 이후의 정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Boelen, Stroebe, et al., 2006; Boelen, van den Bout et al., 2006; Bonanno et al., 1995)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선행 타당화 연구(Baket et al., 2016)가 제안한 3개 요인 구조가 적합했다. 이는 사별 이후 경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 활동에 대한 회피를 묻는 문항에서 '고인을 모신 장소(문항 1)', '장례식(문항 13)', '죽음과 관련된 장소(문항 2)'와 같이 의미가 유사한 단어가 다른 상황적 맥락에서 반복 포함되면서 문항의 내용 간의 관련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상 문항 총점 상관(ICC)이 .662~.826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문항 내용 간 유사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자의 애도 회피 증상 수준이 선행 연구에 비해 낮았다. Baker 등(201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GRAQ 평균이 23.00(± 13.0)이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11.31(± 10.1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도 회피 양상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참여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사별 이후에 지속 비애 증상을 보이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K-GRAQ의 요인 구조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애도 회피의 정도를 폭넓게 탐색하고자 사별 후 경과 기간 범위를 6개월~20년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나, 사별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한 대상자가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사별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애도 회피에 차이가 유의했다. 이는 애도 회피의 평균 점수가 선행 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했을 때 사별 후 경과 기간을 제한하여 척도의 요인 구조와 타당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라영, 장진이 (2020).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통 감내력, 애도 회피, 침투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Stress*, 28(3), 107-117.
- 김민규, 김주환,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소희 (2019). 외상 경험과 복합 외상후 증상의 관계에서 감각기억 활성화, 내러티브 파편화의 역할 및

-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을 활용한 구성체계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진, 송인한 (2020). 한국어판 복합 비애척도(K-ICG)의 타당화 연구. *사회융합연구*, 4(4), 51-61.
- 박기쁨, 우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SI-18)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안제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 정신의학*, 19(1), 47-56.
- 장현아 (2009).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의 개념과 진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03-317.
- 조선화, 강영신 (2015). 애도 회피에 따른 침투적 반추 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 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41-663.
- 조용래 (2011). 한국판 개정된 시험불안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1, 99-109.
- 차성이, 박신영, 현명호 (2022).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2010~2020):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4), 319-34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DSM-5-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ker, A. W., Keshaviah, A., Horenstein, A., Goetter, E. M., Mauro, C., Reynolds III, C. F., . . . & Simon, N. M. (2016). The role of avoidance in complicated grief: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GRAQ) in a large sample of individuals with complicated grief. *Journal of Loss and Trauma*, 21(6),

- 533-54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elen, P. A., Stroebe, M. S., Schut, H. A., & Zijerveld, A. M. (2006). Continuing bonds and grief: A prospective analysis. *Death Studies, 30*(8), 767-776.
- Boelen, P. A., van den Bout, J., & van den Hout, M. A. (2006). Negative cognitions and avoidance in emotional problems after bereavement: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1), 1657-1672.
- Boelen, P. A., van den Hout, M. A., & van den Bout, J. (2006). A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of complicated grief.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3*(2), 109-128.
- Bonanno, G. A., Keltner, D., Holen, A., & Horowitz, M. J. (1995). When avoiding unpleasant emotions might not be such a bad thing: Verbal-autonomic response dissociation and midlife conjugal berea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75-989.
- Bonanno, G. A., Papa, A., Lalande, K., Zhang, N., & Noll, J. G. (2005). Grief processing and deliberate grief avoidanc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bereaved spouses and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86-98.
- Brown, T. A. (200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Multiple factors or method effec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1*, 1411-1426.
- Comrey, A. L., & Lee, H. B. (2013).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2nd)*. New York: Psychology press.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Hogan, N. S., & Schmidt, L. A. (2002). Testing the grief to personal grow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ath Studies, 26*(8), 615-634.
- Kashdan, T. B., & Kane, J. Q. (2011). Post-traumatic distress and the presence of post-traumatic growth and meaning in life: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oder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1), 84-89.
- Kersting, A., Brähler, E., Glaesmer, H., & Wagner, B. (2011). Prevalence of complicated grief in a representative population-based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1*(1-3), 339-343.
- Lechner-Meichsner, F., Mauro, C., Skritskaya, N. A., & Shear, M. K. (2022). Change in avoidance and negative grief-related cognitions mediates treatment outcome in older adults with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therapy Research, 32*(1), 78-90.
- MacCallum, F., Sawday, S., Rinck, M., & Bryant, R. A. (2015). The push and pull of grief: Approach and avoidance in bereavement.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6*, 105-109.
- Neimeyer, R. A., Burke, L. A., Mackay, M. M., & van Dyke Stringer, J. G. (2010). Grief therapy and the reconstruction of meaning: From principles to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0*, 73-83.
- Prigerson, H. G., Maciejewski, P. K., Reynolds III, C. F., Bierhals, A. J., Newsom, J. T., Fasiczka, . . . & Miller, M. (1995).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A scale to measure maladaptive symptoms of loss. *Psychiatry Research, 59*(1-2), 65-79.
- Shear, K., & Shair, H. (2005). Attachment, loss, and complicated grief.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7*(1), 1-10.

- 473), 253-267.
- Shear, K., Monk, T., Houck, P., Melhem, N., Frank, E., Reynolds, C., & Sillough, R. (2007). An attachment-based model of complicated grief including the role of avoidanc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7, 453-461.
- Shear, M. K. (2010). Exploring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from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theory and the dual process model.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4), 357-369.
-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8.
- Spitzer, R. L., Kroenke, K., & Williams, J. B.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6B42 Prolonged grief disorder.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browse/2024-01/mms/en#1188832314>

원고접수일: 2024년 2월 14일

논문심사일: 2024년 3월 14일

게재결정일: 2024년 3월 14일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K-GRAQ)

Sung-Yi Cha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GRAQ) developed by Shear et al(2007) according to domestic situations. The final items for the K-GRAQ were constructed with consent and review from the original authors. Subsequentl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were tested on 483 adults aged between 19 and 60 who had experienced bereavement in intimate relationships between 6 months and 20 years of the loss. The reliability of the K-GRAQ was deemed satisfactory, as evidenced by its internal consistency, total-item correlations, and test-retest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241$)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242$)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GRAQ. Whil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a two-factor solution, the fit indices favored the three-factor model proposed by the original authors. Additionally, convergent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K-GRAQ and the symptoms of complicated grief, depression, and anxiety.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Grief avoidance, K-GRAQ,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Complicated grief